

2026. 6. 30.(화) 조간 (온라인 보도) 2026. 6. 29.(월) 12:00

국립소방연구원, 소방대원 보건 안전관리를 위한 전용 인체 세정제 개발 추진

- 현장 소방대원 대상 후보 인체세정제 3종 사용성 평가 실시
- 재난현장 소방대원 인체 오염물질 제거 성능 검증 나서

-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(원장 김연상)은 화재·구조·구급·특수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의 보건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용 인체세정제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, 개발 중인 후보제품에 대한 현장 사용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- 소방대원은 화재 진압, 구조·구급 활동, 화학사고 대응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연기, 분진, 그을음, 유해화학물질 및 악취 성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, 이러한 오염물질이 두피, 모발, 피부 등에 잔류하게 되면 피부 및 두피 자극, 건조감, 가려움증 등 다양한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.
- 특히, 소방활동 특성상 유사한 노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현장 활동 후 잔류 오염물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소방대원의 장기적인 건강 보호와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.
- 이에, 국립소방연구원은 대구가톨릭대학교 및 한국콜마와 공동으로 소

방활동 후 두피와 피부에 잔류할 수 있는 오염물질 제거용 인체세정제 연구 개발(R&D)을 추진하고 있으며,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제품 개발을 위해 후보제품 3종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진행한다.

○ 이번 평가는 중앙119구조본부, 119특수구조단, 119화학구조센터,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 실화재 훈련 교관 등을 대상으로 2주간(2026. 6. 24. ~ 7. 8.) 진행하며, 실제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제품의 현장 활용성과 사용 적합성을 검증할 예정이다.

○ 주요 평가항목은 ▲세정력 및 소취력 ▲피부·두피 자극도 ▲사용 편의성(기포력, 행굼성 등) ▲전반적 만족도 및 현장 적용 적합성 등이다.

○ 연구진은 단순한 세정 성능뿐만 아니라 현장 대원들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와 편의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제품을 선정할 계획이다. 세정력과 소취력이 우수하더라도 피부 및 모발 건조감이 크거나 사용 편의성이 낮을 경우 현장 적용성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,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.

□ 김홍식 안전정책연구과장은 “소방대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오염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인체세정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”며, “앞으로도 소방대원의 건강 보호와 보건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안전정책연구과	책임자	과 장 김홍식 (041-559-0580)
		담당자	소방경 조철희 (041-559-0585)

대한민국
지^이책브리핑

대체불가
대한민국

